

사물과 건축·공간과 예술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

김종진 지음

에나 지금이나 자연은 인류에게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인류는 다양한 자연 현상을 보며 거기에 맞추어 언어를 개발했다. 그것의 언어는 점점 정교해졌고 추상화되었다. 정교함과 추상화는 결국 개념이라는 '틀'로 불 수 있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땅과 물이 평평해지는 부분을 일컬어 지평선, 수평선이라 한다. 고대 인류는 끝 간 데 없이 펼쳐진 광활한 바다를 보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드넓은 바다를 보며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감흥을 떠올렸을 것이다. 느낌, 감흥은 감정과 연계되는 것이고 이 같은 내용은 자연스럽게 추상적인 개념을 떠올리는 단초로 작용했을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수평면을 만들어나갔다. 이것과 맞물려 인간의 동작은 물론 행위, 생활 등도 점차 정교해져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공간의 수평성이 인간의 정신세계



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문화가 시작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술을 꽃피운 이면에는 다양한 형태가 자리했다. 김종진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는 열 가지로 분류한다. 지금까지 '미지의 문', '그림자의 위로', '공간의 진정성' 등 책을 통해 공간 설계와 공간 미학을 가르쳐왔다. 최근 펴낸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는 열 가지 형태와 함께한 여정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평 판의 공간 문화'는 건축의 핵심 요소다. 인간이 직립을 하는 이상 평평한 대지와 건물은 가장 본질적인 형태 가운데 하나다.

저자는 스위스 전원 마을 리헨에 있는 바이엘러 파운데이션을 말한다. 이탈리아 건축가 렌초 피아노가 설계했으며 단층 건물이다. "겸손한 건축 형태 외에도, 부드러운 자연 채광, 수련 연못 옆 노네의 '수련 전시실'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곳은 전시 공간을 하나의 평평한 판으로 구조화했다. 125m에 달하는 수평 바닥이 모든 공간 배경으로 설립자는 어린이는 물론 노약자, 장애인 모두 불편함 없게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자연과 사람을 위한 미술관을 상징한 것이다.

수평 판이 입체판으로 쌓인 스페인 발렌시아에 있는 아메리칸스 컵 빌딩도 이색적이다. 외부 테라스에서 발렌시아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모습은 장관이다.

'수직 판의 공간문화'에서는 사람과 수직 판이 만나는 유형들을 보여준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수직 판 형태는 문, 창, 벽이다. 인류를 보호하고 삶을 담아왔던 양식이다.

네덜란드 오텔로에 있는 국립공원에는 크릴러 윌러 미술관이 있다. 이곳 조각 정원에는 수직 벽을 활용한 디자인이 있다. 건축가 알도 반 에이크가 설계한 파빌론이 대표적이다.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수직 벽(6개)이 나열됐는데 안쪽은 크기가 다른 반원으로 휘어져 이색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놀이터를 떠올릴 수 있는데, 설계자는 즐거운 경험을 하는 공간으로 상징했다.

기울은 '경사 판의 공간 문화'를 대변한다. 고대 인류가 만든 경사 형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다. 제4왕국 쿠푸왕 무덤은 막강한 권력, 사후 세계를 대변한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 경사건축"은 신비롭기 그지없는데 인류 공간 문화의 빛나는 일면을 보여준다.

그리스 해안 소스티스에 소재하는 몰드 건축은 경사지를 활용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경사지에 묻는 방식으로 주택을 건립했다. 땅 기울



1 수평 판의 공간 문화를 대변하는 스페인 아케리 카스컵 빌딩. 2 수직 공간 문화를 보여주는 네덜란드 크릴러 윌러 미술관의 파빌리온.



기울 매개로 거주 기능을 배제한 건축가 의도가 돋보인다.

부드러운 포용을 지지하는 '곡면 판의 공간 문화'는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곡선의 세계를 초점화

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산세를 이용해 구불거리며 뻗어가는 형상을 이룬다. 벽을 형성한 수직곡면과 바닥을 만드는 수평 곡면이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저자는 '기동판의 공간 문화'를 비롯해 '그리드의 공간 문화', '구의 공간 문화', '원의 공간 문화', '정육면체의 공간 문화', '비정형의 공간 문화'의 미학을 다양한 사례로 풀어낸다.

(효형출판·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순신과 함께한 명량해전 참전자 연구, 그 문중과 혼맥

박갑로 지음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남긴 중요한 사료다. 개인적인 일기를 넘어 당대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등을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난중일기'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발간됐다. 이순신, 임진왜란, '난중일기' 등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나름의 의미 있는 책들을 펴냈던 것이다.

이번에 새로 발간된 '이순신과 함께한 명량해전 참전자 연구, 그 문중과 혼맥'은 난중일기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풀어나간 책이다. 대한이순신연구소 박갑로가 저자로 지금까지 10여 년간 이순신과 함께한 '난중일기' 등장인물을 연구했다. 저자는 이번 책에 등장하는 수백 명의 인물과 후손들을 추적해 조사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새로 발굴된 내용과 오류들을 다수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각 해전에 참전한 군공(軍功)으로 발급받은 군공상직(軍功賞職) 교첩(교신)을 430년 만에 9장 발굴했다. 또한 '난중일기' 등장인물을 추적하다 해전을 7회나 추가로 발굴했으며, 갑오년(1594) 한산도 무과 급제자를 20여 명 알아낸 것도 있다고 언급한다.

다음의 내용이 있다. 저자는 "난중일기에 기록된 호남의 무장 중에 이순신의 조부장이 3명에 있는데 그중 강진의 배경남과 화순의 정경운 두 사람을 필자가 발굴했다"며 "배경남과 정경운은 '족보'와 '호남절의록'에 이순신 또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400여 년간 잊혀진 인물"이라고 했다.

이밖에 새롭게 알아낸 내용을 포함해 이순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임진왜란 전후 활동한 이들의 가계 등 다수 자료도 실려 있다.

(도서출판 한빛·3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토록 유익한 인터뷰'

정지효 지음

"우리는 잘 살려고 바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데 오히려 그 속도와 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쉬엄쉬엄 살기도 좋은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효 작가)

"변호사로서 제가 하는 일의 장점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순과 아픔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말과 글 그리고 실천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의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박준영 제심 전문 변호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열 세 명의 셀럽들과 특별한 만남. TV방송작가이자 여행작가로 활동하던 정지효 작가가 인터뷰 에세이 '이토록 유익한 인터뷰'를 펴냈다.

광주일보 연재로 시작한 '이토록 유익한 인터뷰'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식과 함께 삶을 통찰하는 지혜를 전하기 위해 사회, 문화, 철학, 경제,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종합무진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만나고 싶은 셀럽들의 이야기로 채웠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인생 문장' 한동일 교수, 지구를 사랑하는 벨기에 청년 줄리안 퀴타르트, 별처럼 시처럼 과학을 노래하는 이병현 전문학자, '한국의 파브르' 정부희 곤충학자, 심리학의 사용법을 전하는 한민 문화심리학자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 속에 빠져들게 한다.

저자 정지효는 "한 사람의 응축된 지혜를 듣는 일야말로 최고의 공부라는 사실을 이들의 대화를 통해 새삼 깨달았다"며 "결과의 위대함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 준 열 세 명의 특별한 대화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독자들의 삶에도 새로운 스토리가 되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세계의 대안교육

넬 다닝스 등 역음, 심성보 외 10인 옮김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서머힐 등에서 공부하는 '대안교육'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내재한 근원적 역량을 발굴하거나,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면적 대안교육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국내의 대안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 현주소와 미래를 논의하는 책이 나왔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넬 다닝스와 영국 버밍엄 뉴만대 교육학 선임강사 헬렌 리즈가 엮은 '세계의 대안교육'은 대안적 교육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해 온 기록이다.

1부에서는 대안교육의 기본 속성을 들여다본다. 논쟁적 개념인 피그말리온 효과와 신경과학의 가능성과 위험, 교육의 상호성과 잠재성, 유연성 개념에 대해 전문가들의 언급을 살핀다. 이어 2부 '대안교육, 다르게 실행하기'에서는 홈스쿨링과 교육실습, 브라질 혁신교육운동인 홀리스틱 등에 대해 사례를 들여다본다. 수카타 미트라나 수니에타 콜카르니, 나가타 요시유키 등 전 세계 대안교육 경험을 소개하는데 '숲학교 모델'이나 '덴마크형 학교' 등은 국내에서도 참조할 만한 지점이 있다.

"대안교육에 만병통치약이란 없다. 하지만 대안교육의 다양한 생각과 행동, 실천 사례들은 혁신교육을 지향하는 이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3부는 '다르게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이란, 중국, 이스라엘, 독일 등의 경우를 검토한다. 행동주의 교육을 표방하는 애착 자각학교나 고독과 영성에 대해 주목하는 영국의 케이스, 개발도상국의 사립학교를 통해 대안교육 미래를 제시한다.

(살림터·3만8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